

# 강진군, 새해벽두부터 아기 울음소리 끊이지 않네

### 5일 만에 7명 태어나...이달 말까지 14명 더 출생 예정 전국 유일 7세까지 월 60만원 지급 육아수당 등 호응

전국적으로 출생이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에 1월 1일 첫아가가 태어난 모두의 축하를 받은 이후, 닷새 만에 6명이 더 태어나 총 7명이 태어나며, 청통의 해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를 받게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월 말까지 14명이 더 출생 예정으로, 이는 전년 1월 기준 1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의 2023년 출생아 수는 154명으로, 2022년 93명에서 6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강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세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준비용품 등 과감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출생아 수 증가와 더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 건설을 위해 다양하고 차

별화된 임신·출산 정책을 실시 중이다.

먼저 임신부에게는 ▲임산부 임신제·철분제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각각 최대 6만 원) ▲출산용품(1인당 10만 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이상 3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이용료) 또는 산후조리비(15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등을 지원한다.

군에 주소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에게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



담 경감과 임신부 및 신생아의 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 100만 원이었던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154만 원으로 인상을 지원하고, 임신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임신부 안전벨트 대여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임신부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지원으로 더 많은 부부들이 강진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특별점검 실시하기로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 감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 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 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명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하여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 유치면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소통 활발

장흥 유치면(면장 안경아)은 신년을 맞아 각 마을을 방문하며 올해 군정 비전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2024년도 군정방향에 맞춘 면정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갑작스런 한파로 표고농가 피해를 확인하고, 벼식상연연구원과 군 산림휴양과, 유치면 표고작목반, 도·군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대책 마련에 부서별로 발빠르게 대응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틈새에 민감해야 함에 따라 경로당 식사공간과 주방의 활성성을 살피며 소규모 보수계획도 수립하였다.

안경아 유치면장은 "살기좋은 유치, 주민의 일상이 더 행복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4월 완도서 열린다

올해 해양수산업자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완도군이 최종 선정됐다.

완도군은 9일 해양수산업 현직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3회 수산인의 날

행사가 오는 4월15일(잠정) 완도 청해진포트 센터에서 열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수산인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을 비롯한 기념식과 수산정책 포럼, 대한민국 수산대전, 치어

방류, 바다 쓰레기 수거, 마을 어장 가꾸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해양수산업, 한국수산업총연합회, 전남도, 완도군 관계자들은 실무회의를 갖고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 최대 생산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 군이며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국비 1442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희수 완도군수는 "올해 수산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수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진도 '어촌 신활력' 2개 지구 선정... 서망항·진도항, 늘옥도항

### 2027년까지 350억 투입 수산단지·기항지 개선사업 등 추진

구분	구명	사업비(백만원)
1. 수산단지	서망항 어촌수산업단지	70,000
	진도항 어촌수산업단지	4,700
2. 기항지	서망항 어촌수산업단지	5,300
	진도항 어촌수산업단지	8,550
3. 늘옥도항	늘옥도항 어촌수산업단지	2,820
	늘옥도항 어촌수산업단지	3,045
4. 기타사업	서망항 어촌수산업단지	4,391
	진도항 어촌수산업단지	824
5. 기타사업	서망항 어촌수산업단지	5,781
	진도항 어촌수산업단지	5,089
6. 기타사업	서망항 어촌수산업단지	30,000
	진도항 어촌수산업단지	110,000

진도군은 해양수산업에서 주관하는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2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업 대표 국정과제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은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번 공모에서 서망항·진도항 권역(300억 원)과 늘옥도항(50억 원) 권역이 각각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서망항·진도항 권역에서는 4년간 진도-제주도 신규카페리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한 수

산단지(컴플렉스), 복합관광센터, 청년주거단지, 공원조성, 마을정주여건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늘옥도항 권역은 기항지 개선사업을 통해 낙도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대와 생활안정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물류·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15개 어항에 총 사업비 66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도 2건(사업비 100억 원)과 이번에 선정된 2건(사업비 35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5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국립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